

이야기 카드 1

망쳐 버린 시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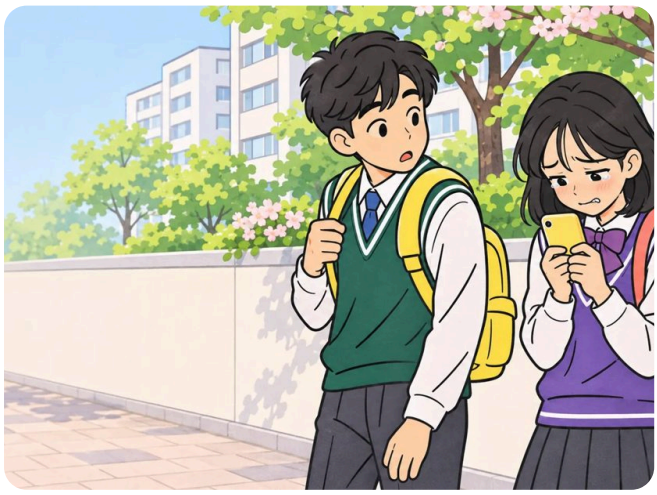
수학 시험지를 받은 지우가 시험지를 반으로 접어 쥐었다. 그리고 짝 태오에게 작게 말했다. “나 이번에 진짜 망쳤어. 열심히 했는데….”



이야기 카드 2

계주에서 넘어진 날

체육대회 반 대항 계주. 바통을 받은 태오가 곡선 주로에서 넘어졌고, 우리 반은 꼴찌로 들어왔다. 벤치에 앉은 태오가 무릎을 감싸며 말했다. “나 때문에 졌어.”



이야기 카드 3

병원에 간 강아지

하굣길, 휴대폰을 보던 나연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. “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. 별일 아니겠지?” 나연이 목소리가 떨렸다.